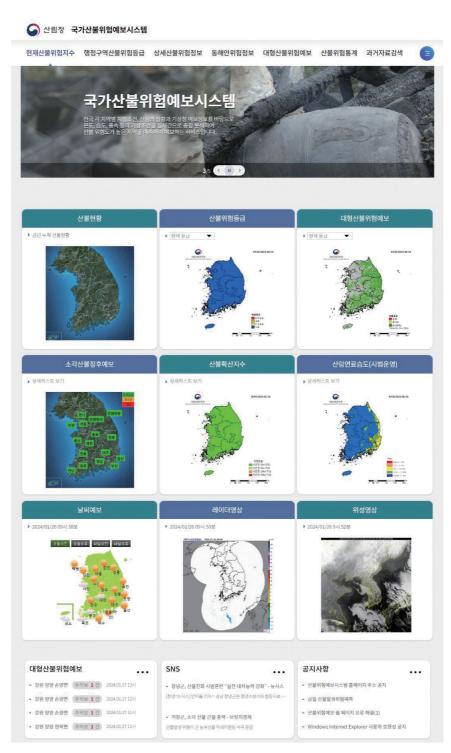
Q2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ICT 기술로 지형, 숲 상태, 기상 조건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산불발생 위험을 지수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행정구역별로 실시간 위험지수 및 최대 5일까지의 예보 위험지수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불위험지수는 1~100까지 숫자로 나타나며 숫자가 높을수록 산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한정된 감시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덜 위험한지를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2003년 웹 기반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개발하여 최초로 웹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에 따라 3단계(매우 낮음, 경계, 심각)에서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위험등급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산불위험정보 SMS 문자서비스 전송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대형산불 위험성이커지면서 2015년부터 대형산불예보제를 실시하였고, 소각산불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2016년부터 소각산불징후예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에는 기상 빅데이터 기반의 산불위험예보 고도화 연구를 통해 산불위험 중기예보, 산불위험 장기예보 체계를 개발하였으며, 동해안 지역 예보제공, 산림연료습도지수, 확산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홈페이지